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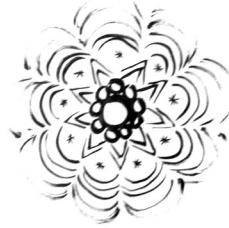
지난 6월 7일 부터 강원도 매주 첼리스트 마을에서 있었던 선화 워크샵의 체험기입니다. 중간 중간에 삽입된 선화들을 감상하세요. 이분들 대부분이 그림을 그려보지 않은 분들이라는 것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더불어 선화를 그리며 맺혀있던 내적 아픔들이 풀어지기도 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편집자 주).

점점 가벼워지고 맑아진다

| 김미애 |

선화를 만난지 두 달이 되어가네요. 끊임없이 찾아드는 혼란스러움으로 힘들었을 때 선화를 만났습니다. 명상을 하며 어느 정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현실에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 다시금 지치게 되고, 그 감정들을 비워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강한 끌림으로 선화 워크샵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하나둘씩 해소되며 기쁨으로 가득참을 느꼈습니다. 환한 빛 같은 에너지가 내 몸 곳곳을 비추었고 꿈틀꿈틀 내속에서 많은 것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곤 내 몸과 마음은 가벼워졌고 고요함이 찾아들었습니다.




김미애님의 선화 중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선화를 그렸고, 선화를 그리다보면 무념무상의 상태로 들어가 어느 순간 내가 없어지고 내 손놀림만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선화를 그릴수록 제가 점점 가벼워지고 맑아지는 걸 느낍니다. 어쩔 수없이 현실에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일들로 제가 혼란스러워지는 시간들이 줄어들었고, 사방으로 의식이 확장되고 내가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비워내려고 하던 마음도 이제 사라졌고, 그런 감정들을 바라보며 품어 안아 선화로 표현하다보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랑과 기쁨, 용서, 연민, 평화로움으로 바뀌는 걸 느낍니다.

마음을 열고 선화를 대하니 내 안에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고 본래의 나, 참나는 완벽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었습니다. 두 달 사이 내 의식이 몇 단계 훌쩍 뛰어넘어 크게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선화가 본래의 나를 만나게 해주는 하나의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화를 만나게 되기를... 

이 세상 모든 어린 친구들이 삶에서 실현할 무언가를 찾도록... Dream no small dream, my friend !

| 고경빈 |

사람마다 세상에 태어났으면 뭔가 실현해야 할 것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 '뭔가'를 잘 알게 될 수 있을까? 그 '뭔가'를 잘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알게 된다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면 될 텐데... 그것이 자아실현이고 나 자신은 물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행복한 삶일 텐데...

그것이 내 삶에서 계속 되는 생각들 중 하나였다.

Dream no small dream, my frien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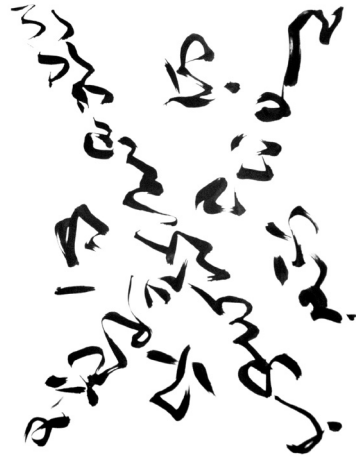
교육이란 그 '뭔가'를 찾아내서 실현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교육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느꼈다. 교육 '학' 만으로 내가 생각하는 교육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된다고 해서 그 '뭔가'를 잘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그 '뭔가'를 찾아낸 것은 아니구나. 분명 모든 사람들이 그 '뭔가'를 갖고 태어날 텐데, 누구나가 다 그것을

발견해 내고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구나.

Dream no small dream, my friend !

그러면 난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하나?
답인 것 같은 것들은 여럿 찾은 것
같은데, 확신이 잘 서질 았다. 그래서
나는 또 찾았다.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Dream no small dream my, friend !



고경빈님의 선화 중에서

미내사 홈페이지에서 '선화' 워크샵에 대해 읽었다. 할까... 말까... 등록을
했다. 같까... 말까... 다음으로 미룰까...

미내사 함양 수련원에 도착했고 워크샵이 시작되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벅참과 감사함에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기 위해 난
수없이 눈을 껌뻑여야했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 삶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드디어 나에게 모습을 드러내주려 하고 있었다.

Dream no small dream, my friend !

워크샵을 마치고 돌아와 도완녀 선생님과 통화를 했다. “선생님, 말로는 뭐라
표현을 못하겠어요. 제 존재의 울림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시간들은 선화를
만나기 위한 디딤돌이었나 봐요.” “그랬니... 우리 집에서 한 번 하자.”


그렇게 해서 3차 선화 워크샵이 열리게 되었고, 워크샵 내내 참석하신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감동을 함께 하면서 선화에 대한 나의 확신은 더욱 커졌다.

Dream no small dream, my friend !

지금 나는 선화와 더불어 다시금 큰 꿈을 꾀다.

이 세상의 모든 어린 친구들이 선화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실현해야 할 그 무엇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현하며 자신은 물론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행복한 삶을 펼쳐 나가는 것을... 그리고 나는 또 꿈을 꾀다. 선화를 통해, 지구촌 모든 인류의 꿈과 희망의 노래가 우주 저 멀리 멀리 메아리쳐 나가는 것을...

Dream no small dream, my friend !

무한한 열정과 정성으로 선화 워크샵을 이끌어 주시는 강영기 선생님께 두 손 모아 가슴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의 본질을 표현하기

| 김미현 |


강원도 정선 된장 마을에서 번잡한 모든 것을 뒤로 잠시

돌리고 처음 접하는 선화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선화는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의 본질을 표현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본질을 보고 표현해낸다는 것은 나의 각 부분, 나의 전체, 나를 둘러싼 우주,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선 것들을 그려냈지요. 감동과 평온함 그리고 내면의 힘을 보고 느낀 3일이었습니다.

강영기 선생님, 도완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김영희 선생님, 김성자 선생님, 박순희 선생님 그리고 경빈이...

모두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주가 한울이 참나

| 김성자 |

신선이 되어 첼로의 음울과 구수한 된장냄새와 비온 뒤 잣나무 숲을 맨발로 걸으며 느끼는 그 포근함과 모닥불의 따뜻함을 온몸과 마음으로 담아왔습니다.

태양계, 은하계, 우주여행의 명상시간에는 갑자기 내 몸속의 통로를 통해 내시경이 되어 핏줄과 세포 모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우주가 한울이 참나
한울이 한울된 것이며 영이
영된 것임을 비로소...

선화공부를 통하여 님의
배려와 크나큰 사랑에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김성자님의 선화 중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일에 게으른 우리를 위해

| 도원녀 |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이치를 깨닫게 해 주신 강영기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황홀하다.

이 작은 지구라는 곳에도 꽃피고 새우는데 몇 억 광년이 걸리는 수많은 다른
별에서는 어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으랴. 생각만 해도 황홀한 세계가 있다는
마음에 가슴이 편다. 이 작은 지구라는 별에서 울고 웃고를 하는데 과연 그 많은
세계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자만심의
근본이 깨져버린다. 8만4천 부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사
그 수많은 깨달은 분들께서 계시다는 사실이 나를 가슴 뛰게 한다. 8만4천이
아니라 더 많은 깨달은 분들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시실 거라는 생각에
미치니 희망이 솟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만 열거해도 너무나 많다. 그
분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에너지를 보내주시리라 생각을 하다가 문득 우리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에 미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수행하고 수행하여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야겠다. 언제라도 시작하는 것은 지 않다는 말씀이 나를 위로한다.

숫자 0에서부터 시작하는 큰 수로 천, 만, 억, 조, 경... 항하사, 무량대수까지
올라가면 그 크기를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없다. 또 마이 스 수로 내려가면 그

크기를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나노는 10의
마이 스 9승이라 하는데 그 크기를 알 수가
없다. 요즘은 피코까지 연구가 되어있지만
단지 작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무언가 무리가
있다. 10의 마이 스... 승이라는 청정이라는 숫자가



도원녀님의 선화 중에서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수의 제일 작은 수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수와 마이 스의 작은 수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들을 생각하며 크게도 생각해 보고 작게도 생각해 보니 0이라는 수는 점점
커져서 우주를 뒤덮을 수로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 내 방식대로의 지금의 생각은
0은 시작의 수요, 끝의 수다. 알파요, 오메가인 0은 색도 아닌 것이 공도 아니다.
문득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뜻을 알 것 같다. 나는 눈앞의 색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인 양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신 강영기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린다.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삶 또한
삶이 아닌 한자락 꽃향기인 것을 느끼며 이토록 작은 존재가 하늘에서 왜
왔을까? 라는 의문으로 간다. 분명 모든 이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무언가가 있을
터인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입는 것도 중요한 일상사일 것이다. 그런데 그 일상사 중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그 무언가를 찾는 일에 게으르고 있다. 아니면
'자성본래불'이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 탁해진 자성으로
세상이치를 보고 있어 원래 있는 그 모습을 탁한 유리창으로 보고 있지는 않을까.
나의 이 작은 존재가 삼천대천세계를 묵상하니 나의 존재는 너무나 커서 우주와
삼천대천세계를 뒤덮었고, 작은 세계로 여행을 떠나니 바늘 끝보다도 더 작고
작아져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마음자락이라는 것 하나로 우주를 뒤덮을
만큼 커질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작은 존재도 될 수가 있으니 이 아니 놀라운
발견이 아닌가.

내 책상 앞에 붙어 있는 글귀를 다시 한번 읽어 본다.

나는 죽음을 환영하지도 않으며
삶을 환영하지도 않는다.
고용인이 품삯을 기다리는 것처럼
다가오는 때를 기다린다.

나는 죽음을 바라지도 않으며
삶을 바라지도 않는다.
바로 알고 바로 생각하며
나는 때가 오는 것을 기다린다.

가목리에서 비 소리를 들으며 쓰다.
도완녀 2007.6.12



참을 수 없는 전율과 울음이

| 박순희 |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내 마음도 구름처럼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엉덩이에 바람이 일렁이고, 나무가 너무도 예쁘고, 짙레꽃이 보고 싶어서 눈시를 뜨겁게 하던 나날들을 바쁘게 산다는 이유로 시간을 그냥 흘러보냈는데...

아니!?!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짙레꽃이 떠억 버티고 기다려주고 있질 나. 오마이 갓! 속으로 탄성을 지르고는 참! 오묘하다!! 선화! 숫자가 어땡고, 그림이 어찌고... 나와는 거리가 멀고 머~언 이야기, 그런데도 신기하게 땡긴다. 계획 없이 사는 나에게, 또한 숫자라 하면 마음을 꼭 닫아 버렸는데, 그림, 그림은 진짜 짬병인데! 선화를?? 우짜지?? 사알짝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산에 가고 싶은 마음을 소풍가듯, 가슴에 이는 바람을 나무들이랑, 시냇물 보며 쉬자 라는 생각으로 달래가며 참석을 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선녀라 하신다! 이상하다, 전혀 군더더기나 헛된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하지만 선화에 대해서 이해가 오면서 왜 선녀라 하시는지, 왜 선화인지 이해가 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틀 동안 도대체 뭐가 무엇인지를 몰랐다. 범성계를 왜 말씀하시는지, 금강경, 사구계를 왜 말씀하시는지를... 식물을 입체적으로 보라 하시는지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또렷이 생각이 난다.

다른 님들은 하산을 해도 될 만큼 잘도 그리신다. 사~알짝 질투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워 지기 시작한다. 아이 이게 뭐람! 쉬려고 왔는데...



무식해서 너무도 용감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하지만, 참으로 신기한 건 마지막 날 이해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 선화가 알아지는 순간, 참을 수 없는 전율과 울음이 나왔다. 누룩이라고 주신 선화에서는 강렬한 태풍에너지가 나오며, 상대방의 기운을 느끼기에서는, 아~ 나의 예고는 봄 햇살에 눈 녹듯 녹아 버리고,

담배연기처럼, 구름처럼, 하트모양을 한 에너지가 사방으로 흘러나온다. 그래! 색, 색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이라더니! 언젠가 명상 속에서 우주와 나는 하나구나!를 알았던 순간이 있었다. 우주를 아는 순간, 내 몸은 그저 울음만이 존재했었는데.

모든 법이 하나라는 사실을, 그 하나는 또 모든 것이라는 사실마저도, 알게 하는 선화!!!!!!

소쩍 새는 공의 세계를 알리고자 그렇게 목 놓아 소쩍소쩍 울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다. 선생님께서는 우주의 파장을 그려라, 그리하면 사랑과 자비의 선화가 그려진다고 하신다. 누룩이라고 주신 선화는, 보고 있으면 계속 눈물이 나오고, 아이들한테 쓰는 언어가 명령어에서 부탁의 말로 바뀌어졌다. 삼라만상이 이해가 벌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말씀을 하시고자 팔만사천법문을 하셨나봅니다.

강원도 정선 물이 참으로 달콤하고, 된장 내음이 구수하게 곳곳에 베어나는 메첼. 그곳 주인인 도완녀 선생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듯, 팔방미인인 도완녀 선생님. 고맙습니다.


집에 오니, 그때 먹었던 음식들이 그림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그 기운으로 공부가 더 잘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랫동안 공부하신 걸 며칠 만에 증득해 주시니, 그저 두 손 모아 합장하옵니다. 진정 고맙습니다.

선화를 그리는 것, 빛과 소리를 그려내는 것, 우주의 진리를 그리는 것, 법이 둘이 아님을 아는 것... 집에 오니, 방구를 부웅~핀다. 내 몸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을 알아차렸을 때, 방구는 여지없이 시원하게, 풍!~

아시죠? 우리들의 선화방구를...! 알고 보니 선화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네요...!

아직도 계속 방구는 나오고, 제가 왜 이리도 예뻐지는지를 선생님께서는

아시죠???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선화(仙畵)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고귀한 선물

| 고경빈 2, 3차 선화 워크샵 참가자 |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찬란하게 피고 열매가 많습니다.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끊이지 아니하므로
내를 이루어 바다로 흘러갑니다.
- 용비어천가 2장 -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던 아기 독수리가 어느 날 푸른 하늘을 유유히 날고 있던 독수리를 보고 감탄을 하며 “와, 저 새는 어떤 새이길래 저렇게 멋지게 하늘 높이 날까? 나도 저 새처럼 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병아리가 우쭐대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몰라? 저건 새들의 제왕인 독수리야. 우리와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말을 들은 아기 독수리는 “그렇구나. 정말 부럽다.” 라고 중얼거리며 다른 병아리들과 함께 벌레를 찾아 고개를 떨구고 부지런히 흙을 파헤치며 쪼아댔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 우화 속의 아기 독수리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창공을 훨훨 나는 독수리임을 깨닫게 해주지는 못하고, 한 마리의 벌레라도 더 잘 잡기 위해 고개를 떨구고 오늘도 열심히 흙을 파헤치는 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독수리임은 까맣게 잊고 폼 나는 닭이 되기 위해 인간 힘을 쓰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육현실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실 새 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방법론과 대안들, 그리고 가르침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본래의 모습이 독수리임은 깨닫게 해주지 못하고 별레 잘 잡고, 경쟁에서 앞서가는 품 나는 닭이 되는 방법을 제시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혼란과 방향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가 독수리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더 이상 드높은 창공을 동경만 하는 어제의 병아리로, 닭으로 있을 수는 없겠지요!

그 깨달음에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이 선화 그리기입니다.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선화는 모두를 멋진 화가로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선화는 만물의 원인이며 목적인 소리를 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만물의 근원적인 에너지이며, 만물이 진동수의 과다로 그 모습이 결절 을 오늘의 과학은 증명해 놓았습니다.

이제 이 진동의 힘 즉 파동의 힘인 원 적인 소리를 그려냄으로써 즉, 선화를 그림으로써 우리는 본질적인 생성의 바탕에 우리의 의식을 밀착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의 품으로, 우주의 기 적 울동 속으로 스스로를 안내하여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세계와 친구를 맺을 수 있게 되어, 그 모든 혼란과 방향, 일상생활의 수많은 왜곡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화의 주제는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하품소리, 방구소리, 싸우는 소리, 억지 부리는 소리, 한숨소리, 선생님의 고함 소리, 우월감과 열등감, 부러운 것, 부끄러움, 속상함, 아쉬움, 그리움, 사랑, 바람소리, 시냇물 소리, 새싹이 움트는 소리, 새소리, 나무들의 대화, 바위, 공기, 꽃 피는 소리, 봄·여름·가을·겨울, 자연과 대화하기, 공룡들의 세계, 시간여행, 동화의 세계, 그리스 로마 신화세계, 역사 속 위인·영웅들과의 만남, 지하세계 탐험, 잃어버린 세계 아틀란티스를 찾아서, 인체 탐험 여행, 별나라 여행, 우주의 친구들과 만나기, 빛의 소리,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 만나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현재 나의 모습, 미래의 나와 만나기, 모든 것을 이루어낸 나와 만나기 등등.

우리 아이들이 밤하늘 별의 수만큼이나 많은 다양한 주제들의 소리를 그려가는 동안 혼란과 방황은 사라지고, 가슴속 꿈과 희망의 비전이 아름다운 현실로 이루어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법과 같은 선화의 힘이며, 이러한 선화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고귀한 선물일 것입니다.

선화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독수리가 되어 푸른 하늘을 훨훨 날게 될 것이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찬란한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샘이 깊은 물이 되어 저 드넓은 대양을 향해 유유히 흐르게 될 것입니다.